

李濟馬의 學問的 淵源과 四象醫學의 形成時期에 對한 研究

金達來*·高炳熙*·宋一炳*

I. 緒 論

東武 李濟馬의 四象醫學이 獨創的이라는 사실은 李能和, 崔南善 등 近世 國學者들에 의하여 이미 言及된 바 있으며, 요즘 들어서는 分野를 가리지 않고 識者層들에 依해 關心이 한층 더 高潮되고 있는 實情이다.

1800年代를 살았던 東武의 學問的 成果가 오늘날 그 빛을 發하는 데는, 그의 學問이 現代의 思潮에 맞게 實用的이고, 實證的이라는 山증거라 하겠다.

東武가 1894年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여 한世紀가 흐른 現在의 四象醫學은, 簡略한 文脈과 그 深奧한 原理때문에, 東洋哲學的 知識이 不足한 醫者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初期의 어려움을 뜻있는 많은 臨床家들의 노력으로 克服하고, 醫學經驗上 많은 發展을 보게 되었고, 韓醫學界 內에서의 關心과 그 應用度가 점점 增加趨勢에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사람들은 東武 李濟馬를 단지 醫學者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의 四象醫學은 既存의 韓醫學과는 別個로서, 어느날 內經 靈樞의 陰陽 25人論을 보다가 偶然히 發明되었고, 따라서 既存의 韓醫學과는 전혀 相反된 학문으로서 異端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東醫壽世保元 前篇(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醫原論과 廣濟說까지)의 內容을 四象醫學病症

論과는 아무 相關이 없는 것으로 여겨, 아예 一瞥정도만 그치는 代身에, 四象人病症論은 마치 數學의 公式인양 暗記해 버릴 姿勢로 臨하는 것이 四象醫學에 대한 態度이다.

東武가 살았던 時代는 偶然히 性理學的 思考가 全體를 支配하던 專制君主王朝였었고, 六經 四書를 科目으로 한 科擧制度를 통하여 人材를 登用하던 封建社會였었고, 그 自身 또한 經書를 通讀하여 그 時代의 有名한 儒學者들과 學問, 思想에 對해서 交分을 나눌 수 있었던 儒學者였던 것은 偶然한 事實이다.

이러한 그가 어떤 緣由로, 언제 四象醫學을 發明하게 되었는지에 對해, 或者是 10代 初半에 이미 四象醫學에 깊이 沒頭해 있었고, 또 四象醫學을 더 깊이 研究하기 위해 13歲때 家出한 것으로 그의 聰明性을 美化시키기도 했으나, 其實 그는 50歲에 推薦되어 처음으로 官職에 나아간것도 醫學과는 전혀 別個의 分野인 武科였으며, 1986年 瘟病이 大流行했던 후에야 牧民官으로서보다 醫者로서의 名聲이 높았던 것을 考慮해 볼때 우리의 생각과는 乖離가 있는 것이다.

以上가 같은 問題點들을 살펴보기 위해 著者는 東武의 學問, 思想이 胎動할 수 있었던 當時의 時代狀況, 學風, 東武의 師友關係 사상의 학의 완성시기 및 主된 思想 등을 格致藪, 東醫壽世保元과 이미 發表된 論文들을 土臺로 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여 有機的 關係下에서 觀察하고자 本 研究를 始作하게 되었다.

II. 本論 및 考察

1. 朝鮮後期の 儒學思想

유학의 淵源은 堯, 舜, 禹, 文, 武, 周公, 孔子에 이르는 것이 정통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孔子가 集大成하고, 그후 孟子가 공자의 사상을 繼承, 發展시켰다. 宋代에는 佛敎와 道敎사상의 영향을 받아 宇宙의 原理와 人間의 心性을 哲學的으로 探究하였다.¹⁾

周濂溪는 우주본질을 太極으로 규정하고, 우주본질을 氣一元論의 立場에서 고찰하였고, 張橫渠는 ‘氣의 聚散은 一定한 必然의 理를 좇아서 행해진다’는 理氣一元論의 立場에서 氣一元論적이었으며, 二程子(明道, 伊川)는 “陰陽은 氣의 形而下이고, 道는 太虛이며 形而上이다”라는 道器說을 主張하였으니 理氣一元論의 立場에서 氣一元論이었다.

朱熹는 理氣決是二物, 理氣不可分開, 理先氣後의 理氣二元論을 주장했으며 朱熹의 理氣哲學은 16세기에 들어와 朝鮮朝 儒敎哲學思想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²⁾

李滉은 주자의 이론을 받아 理氣二元論을 주장했고, 徐敬德은 理氣一元論의 立場에서 氣一分殊로서의 唯氣論을 주장했고, 奇大升은 理氣共發에 의한 理氣一元觀에서 主氣論을 강조했으며, 李珣는 氣發理乘一道說을 주장함으로써 主氣論을 確立했다.

眞知實踐을 力唱한 李滉과, 修己와 經世를 一致로 본 李珣를 고비로 하여 現實의 日用事爲의 形而上學的 根據樹立을 목적으로 儒學은 性理學이란 哲學으로 深化되어 一步一步 發展하

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主理, 主氣 및 折衷의 三派로 分立論爭하였고, 다시 主氣派 안에서 湖洛論爭이 벌어짐으로써 人性論과 더불어 物性論까지 探究하게 되었다.

그러나 這間의 最重要 課題는 역시 理氣에 대한 問題解決이었던 만큼, 18세기에 들어와서 任聖周는 氣一分殊로서의 唯氣論을 주장했고, 19세기에 들어와서 崔濟愚(水雲), 崔漢綺는 唯氣論을 支持했으며, 奇正鎮(蘆沙, 1798 ~ 1879)은 理一分殊說을 제창하고, 唯理論을 樹立함으로써, 우리 性理學은 여기서 一但 마무리를 지었던 것이다.³⁾

世界歷史를 통틀어 理氣論爭과 같이 數世氣를 두고 계속되어온 論爭은 없었을 것이다.

理氣論爭을 綜合해 볼 때, 理는 太極에 該當되고, 氣는 陰陽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으며, 主氣派, 主理派를 莫論하고 理氣는 서로 分離될 수 없는 存在라는 것이다.⁴⁾

2. 實學思想의 承繼

高麗朝 敗亡의 原因을 佛敎의 積弊로 단정한 朝鮮은, 새로운 指道理念으로서 儒敎의 修齊治平, 格治誠正의 一致를 提出함으로써 朝鮮王朝의 開國理念과 그 實踐方法을 提示했고⁵⁾, 人材를 養育한지 200년이 되는 宣祖朝에 이르러 朝野에는 서경덕, 이황, 이이, 조현, 성혼, 송익필, 정여립, 이발, 정철 등등 韓國史에서 그 명성이 쟁쟁한 人物이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반이후 300여년의 朝鮮은, 밖으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의 양대외침을 당하고, 안으로는 四色黨爭과 양반계급의 분열로 國政은 紊亂해지고 民生은 桎梏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兩亂 以後에 民族意識과 民族的 自覺이 날로

깊어지자, 性理學 및 科學文이 全盛하던 孝宗, 顯宗 때 柳馨遠이 ‘碻溪隨錄 26 권을 著述하여 朝鮮經濟의 改善策을 發表하고⁶⁾, 그 뒤를 이어 李翼은 星湖(塞說, 朴濟家는 北學議를 著述했다. 이들의 學風은 經世致用, 利用厚生하는 實事求是의 學問으로 實學이라 부른다. 實學思想은 利用厚生論과 經世致用論의 두줄기로 나누고, 利用厚生論의 思想的 原流를 더듬어 올라가면 그 출발이 李之菡의 產業經濟論⁷⁾에 있고, 經世致用論의 思想的 原流를 더듬어 올라가면 그 출발이 이이의 東湖問答⁸⁾에 있다.

1) 經世致用論

經世致用學派란 制度의 革新을 통하여 民弊를 덜고 國利民福을 꾀하고자한 학자들로 울곡의 경우처럼 部分的 改良을 뜻한이도 있었고, 유형원처럼 國政全分野에 걸친 改編을 통하여 體制의 革新을 주장한 이도 있었다. 그 論議는 먼저 革新의 當爲性을 주장하며, 保守派와 國王에게 革新의 時急함을 알리고, 다음으로 갖가지 弊端의 實際를 舉賴하고 그 是正策을 提示했다.⁹⁾

울곡은 東湖問答에서 革新 즉 變通이 當爲必須임을 力說했으며, 그 改良의 성격은 體制의 補完·安定을 위한 것이다. 그의 改革案은 王이나 당시의 論者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으나, 그 平實함이 대부분 실시 가능한 것, 現實的인 方案이었는데 採用되지 않았던 것이다.

울곡의 營世致用的 정신과 學風을 繼承한 이는 趙憲이다. 울곡의 제자인 그는 모든 民弊와 是正策을 울곡과 더불어 의논하고 연구하였으며, 學風과 求民策이 同質性을 가지며, 分野에 따라서는 이이의 주장을 더욱 具體化 시키고 發展시켰다. 조헌은 유형원과 박제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北學議”의 序에 “是亦, 重峯(조헌의 號)志之也”라 했다.

유형원은 制度의 革新이 國政의 기본이며 濟世의 急先務임을 本格的으로 주장하여 經世致用的 旗幟를 높이 들었다. 그의 思潮는 종래의 觀念的인 王道政治論을 止揚하고 經濟生活의 安정을 政治의 根本으로 삼는 것으로서 그求濟策은 國家體制 全般에 걸친 根本的이고 體系의인 革新이었다.

李翼(1682 ~ 1763)의 학문은 經世致用的 학으로 規定되고 있으며, 이익은 특히 烏곡의 至治主義的 實學과 유형원의 經國濟世의 깊은 관심을 表明하고 있으므로 다산이 그의 이러한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이 - 유형원 - 이익」의 經世學的 系譜는 實踐儒學의 完成者인 다산의 사상에서 低流를 흐르고 있다.¹⁰⁾

다산은 “經世遺表”에서 中央政治機構의 全面的 改編을 詳論하고, 土地制度에 대한 改革을 주장하는 한편, “湯論”에서 間接選舉方式에 의한 國王의 選出 등, 民本主義, 實用主義, 實證主義를 주장했다.

울곡이나 조헌은 「格君心」을 臣下의 最高義理로 생각하고, 萬事가 오직 王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王이 立志하고 聖人이 되면 百姓들도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王을 教育시키려 했고¹¹⁾, 위로부터의 改革을 바랐다.

經世致用學派의 精誠과 悲願을 담은 수많은 名論妙策들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도로 保守的인 當局者에 의하여 容納이 되지 못했고, 爲政者들은 “祖宗之法”이니, “時機尙早”니, “慎重”을 기한다는 상투어를 내세워 문제를 回避하고 말았으니 그들의 挫折은 어쩔 수 없는 時代的 制約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2) 利用厚生論

利用厚生論이야말로 “百姓日用에 無補

이면 學이 아니다”라는 實用主義의 學風이다.

李之菡은 産業開發로 “衣食이 足하면 堯舜의 세상이 부럽지 않다”고 했고, 北學派 (박제가, 박지원 등)는 “國家의 가난은 生産性의 貧弱, 技術의 落後 등이므로 技術導入이 經濟生活改善과 求貧의 大道요, 捷徑이라”고 했다.

다산은 “所謂 聖人の 製作에도 限界가 있고, 時代가 내려올수록 技藝가 精巧해지는 것이 必然의 形勢”라고 하여 尙古主義의 技術論의 打破를 주장했다.

울곡은 ‘동호문답’에서 “治亂은 사람에게 달렸고 所謂 時勢에 關係되는 것이 아니다. 國王만 굳게 뜻을 세우고 열심히 힘쓰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했으나 역시 時勢는 울곡같은 인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나보다. 아무런 物情도 모르고 榮華속에서 자란 임금에게 始終一貫 朱子學의 使命感에서 살아야 되며, 聖人을 目標로 삼으라고 한것은, 無限한 享樂이 保障된 國王에게는 大部分의 경우 緣木求魚의인 呼訴였다. 더우기 王은 그 生活與件으로 볼때 本質의으로 保守的이며 改革과는 反對의 立場에서 섰기 때문에, 울곡의 사상은 理想主義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比하면 北學派는 民衆生活의 安定을 圖謀하는데 있어서 君德에 기대하는 것보다 商工業의 發達과 全般的인 技術의 革新이 요긴하다고 생각했으며, 抽象的인 道德論보다 具體的인 技術論, 方法論을 폈으니 그만큼 時代가 進展된 것이며 近代的인 合理主義의 성장이었다.

中半以後의 朝鮮은, 안으로는 理氣論爭같은 四色黨派의 權利鬭爭으로, 밖으로는 西勢東漸의 變化를 收容하기는 커녕 鎖國으로 一貫했으니 아무리 實學史上이 優秀하다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少數의 先覺의 學者사이의 것이었지 全體民衆의 것은 아니었으며, 朝鮮王朝의 政治

體制는 體制自體의 革新이 아니고는 모든 問題가 解決될 수 없었다는게 先覺者들은 물론, 朝鮮의 悲哀였다.

3) 茶山의 實用主義

在來의 程朱의 獨斷의 形而上學을 打倒하고 中世의인 神秘·迷信을 掃蕩하여 近代的인 新유학을 體系있게 성립하여 實學의 思想을 完成한 것은 다산이며, 東武 李濟馬보다 한세대 以前의 유명한 학자로서 東武에게 影響을 끼친 思想家 중의 代表的인 人物²⁰⁾ 이기에 따로 節을 세워 紹介한다.

다산이 宋儒의 形而上學과 修養論을 排斥한 것은 그것이 實생활에서 遊離된 때문이며, 神秘, 迷信을 打破한 것은 그것이 實생활을 停滯시켜 發展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다산이 유학의 根本概念에 대해 實證的 思考로서 反旗를 든것 중에서 醫學과 關係가 있는 것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¹³⁾

陰陽五行

陰陽은 본시 體質이 있지 않고 다만 明暗만을 가진 것으로서 ‘陰陽生萬物은 될 수가 없다. 聖人이 易을 지을 때에 陰陽相對의 뜻을 取했을 뿐이다.

五行은 萬物 중의 五物인데 五가 어찌 萬物을 낳을 수 있는가?

甲 乙

甲子, 乙丑이란 것은 古人이 日을 紀表하기 위한 것으로서 太古, 黃帝시에 大槁가 六甲을 創製하였다하니, 大槁가 처음으로 어느날을 甲子라 명명하고 乙丑, 丙寅, 丁卯라고 만들었으며, 甲子日이 東方木氣와 相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甲子를 만든 뒤에도 그것을 紀日에만 쓰

고, 甲年, 乙年이란 말이 없었다가 漢武帝의 太初 元년에 이르러서야 甲子年이란 명칭을 처음 썼다.

또 時間的으로 紀表하는 甲乙을 空間的 方位에 까지 應用하여 子方, 午方, 甲方이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地球가 둥글기 때문에 北極이외에는 方位를 정할 수가 없는데 내가 있는 땅을 標準하여 天地의 方位를 정하는 것은 獨斷이다.

南方을 火에 配屬시킨 것은 氣溫이 높은 때 문이겠으나 정작 南極은 北極과 同一할 것이다.

火와 濕의 屬性은 世界萬國에 공통되나 甲子, 乙丑은 漢文을 쓰는 極東 몇 나라에서만 있을 뿐 天地의 定則이 될 수가 없다.

周易

일에 疑心이 있을 때에 占을 빌려 결정하려고, 占치는 方편을 생각하다가 奇數, 偶數의 劃을 그리고 그것을 重疊하여 卦를 만들어 萬物의 形象에 彷彿한 것을 따라 이것은 宮室이다, 이것은 弓矢이다, 馬다, 牛다. 이렇게 象徵的인 이름을 人爲的으로 붙인 것이요, 天地의 定則이 참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易傳에 “器用을 製作하는 이는 易의 象을 取한다”라고 한 말은 대개 어느 器具가 어느 卦의 象徵이 된다는 것이지, 器用을 製作하기 위해 八卦를 그렸거나, 八卦의 法則으로 器具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周易에 乾策 216, 坤策 144 라는 것은 朱子가 河圖의 數로 解釋하였다. 그러나 周易八卦와 河圖十數는 원래 相關이 없다.

漢書藝文志 易學部에 編入된 古雜, 神輸, 古五子 등의 書籍은 災祥을 占驗하는 術書요, 經學이 아니다.

周易에는 周人의 禮法이 들었으니 儒者가 밝

히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醫學

診脈을 한다는 것은 血氣가 衰한가 旺한가, 病情이 虛한가 實한가를 살필 수는 있지만 五臟에 屬한 脈이 각각 있어 그것으로 肝病, 腎病을 알아 낸다는 것은 虛妄한 말이다.

醫者가 五運六氣의 說을 妄造하나 病證에 對해 藥을 쓰는 데는 아무 所用이 없다.

以上에서 살펴볼 때 율곡, 이이, 중봉, 조현, 토정, 이지함등의 18世紀 이전의 實學者 들은 儒敎의 五道政治下에서의 改革을 주장함으로써 保守的이고 特權主義에 빠진, 王을 비롯한 既成 政治階級의 呼應을 받지 못하고, 단지 理想에 그쳤을 뿐이며 그들은 結局 制度政治圈에서 물러나고 말았으나(마치 伯夷가 武王을 피해 政治權力에 남기를 拒否한 것처럼), 18세기에 일어난 實學者들은 위로부터의 改革을 바라는 것을 暴棄하고 民衆生活의 安定과 幸福을 圖謀하는데 있어서 商工業의 發達과 全體社會的인 技術革新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至極히 現實論的인 立場을 펴게 되었으며, 이러한 實學思想은 茶山 정약용의 수 많은 著述을 통해 思想的 完成을 보게 되었다. 이들의 學問과 思想의 承繼는 「이이 - 유형원 - 이익 - 정약용」으로 이어지고 한 世代 지나서 東武 李濟馬까지 그 系譜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3. 19世紀 朝鮮의 時代狀況

倭亂과 胡亂을 克服한 朝鮮은 戰爭으로 말미암아 惹起된 여러 問題들을 解決해 나가면서 社會變化에 對處하는 努力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產業이 크게 發達하였고, 英·正祖

의 中興政治로 나라는 한 때 잘 사는 듯했으나, 19世紀에 들어와서 外戚에 의한 勢道政治로 말미암아 政治紀綱은 紊亂되어 國家財政은 어려워지고, 農民經濟는 破綻에 빠졌다.

한편, 이미 나타나고 있던 身分의 動搖는 兩班中心의 指導體制에 커다란 危機를 招來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농민들의 意識이 점차 높아져 곳곳에서 積極的인 反抗을 試圖하는 民亂이 發生하였다. 이때 밖으로는 天主教와 함께 西洋勢力이 接近해와 兩班社會에 威脅을 주었고, 이러한 混亂 속에서 백성들은 새로운 精神의 慰安을 얻고자 하였으며, 그것은 天主教의 普及과 道教의 流行으로 나타났다. 그런 裏面으로 對內的 混亂과 對外的 威脅을 克服하고자 民衆의이고 民族的 性格을 띤 東學運動이 일어나게 되었다.

1) 19 C의 社會·政治의 狀況

身分制의 變化

19世紀를 前後해서는 兩班의 人口는 점차 늘어나고 常民과 奴婢의 人口는 漸次 줄어드는 傾向을 보였다. 이것은 國家財政과 國防에 支障이 있었기 때문에, 政府는 奴婢를 서서히 풀어주는 政策을 취하여, 1802年 5萬名의 公奴婢를 解放시켰다.¹⁴⁾ 이때부터 身分間의 上下移動이 活發하였으나 이러한 身分移動이 政治權력을 左右하는 段階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民亂의 發生

18 C 英·正祖는 湯平策으로 黨派의 均衡을 잘 維持했으나, 純祖, 憲宗, 哲宗의 나이 어린 임금이 登場하면서, 60年間의 勢道政治가 始作되었다. 勢道政治로 말미암은 中央政府의 不正腐敗와 墮落은 國家紀綱의 解弛와 三政의 紊亂을 가져왔고, 官吏, 地主, 大商人의 橫暴와 收奪에 견디다 못한 農民들은 火田民이 되거나 도적떼에 들어가기도 했다. 百姓들의 不滿

과 忿怒는 마침내 貪官汚吏에 대한 反抗과 民衆의 自覺運動으로 나타났다. 19 C.가 되면서 繼續되는 凶年과 傳染病的 창궐에 따라 民心은 凶凶해지고, 곳곳에서 民亂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代表的인 것은 1811年의 흥경래의 난과 1862年의 淸州民亂 이었다. 특히 淸州民亂을 契機로 三南一帶는 물론, 북쪽의 威興으로부터 남쪽의 濟州道까지 全國的으로 民亂이波及되어 全國이 몹시 騷亂스러웠다.

東學運動

勢道政治 아래서 고통받던 民衆들은 그들의 無計劃的인 民亂이 번번히 失敗로 끝나는 經驗을 되풀이 하는 가운데, 점차 民衆을 위하는 새로운 思想體系를 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때에 東學¹⁵⁾이 나타났다. 東學思想은 이미 庶民에 대한 指導能力을 喪失한 性理學과 佛敎를 排斥하는 同時에, 西歐列強의 東洋侵略과 連結되어 있던 天主教도 排擊하였다. 그리하여 西學(天主教)을 反對한다는 立場에서 東學이라고 하였다. 民衆의이고 民族的인 東學이 창도되자, 이를 따르는 信徒는 三南一帶에 急速하게 퍼졌으며 東學徒들의 勢力이 날로 繁盛하자 政府는 1864年 教主 崔濟愚를 處刑했고, 2代 教主 崔時亨은 農民과 沒落한 兩班들 사이로 教勢를 꾸준히 擴張했으며, 1893年 報恩에서 教祖 仲寬¹⁶⁾ 貪官汚吏肅清, 日本과 西洋勢力의 排斥을 要求하는 集會를 벌였는, 드디어 1894年 高부군수 조병갑의 橫暴와 擄取에 抗據하여 일어난 高부민란에서 발전한 東學運動은 全羅道지방을 휩쓸었다. 이때의 主張은 除暴救民, 輔國安民, 斥倭攘夷였다. 일단 鎮靜됐던 東學教徒들은 乙未事變과 淸日戰爭이 勃發하자, 다시 일어나 救國抗爭을 폈다. 이때는 東學의 南·北接이 合勢하여, 京畿, 黃海, 江原, 平安道에서 끈질긴 抗爭을 했으나 끝내 鎮壓되

었다.

近代文化의 受容

1976年 日本과 江和島條約을 맺고 開港을 했으며, 政府는 富國強兵을 指向하는 開化政策을 推進했으나 順坦치가 못했다(1882年의 壬午軍亂. 1884年의 甲申政變). 1894年 東學軍이 鎮壓되자 日本의 要求에 의해 甲午更張을 맞았고, 이때부터 朝鮮은 近代社會로 突入하게 된다.

2) 醫史學的 狀況

許浚이 東醫寶鑑을 펴낸후 이 책을 간략하게 整理한 책들이 나왔으며, 實證的 學風으로 인하여 從來와 같은 陰陽五行의 哲理的 空論에 사로잡히지 않고 自家의 經驗과 觀察을 中心으로한 經驗醫方書들의 著述을 보게 되었다.¹⁷⁾ 明末, 清初에 北京에 往來하던 耶蘇會士들의 漢譯書 중에 섞여있는 西醫學과 牛痘種法의 漢譯書들의 지식이 實用되기는 한 때 一部分에 局限되었고, 西洋醫學의 術法이 一般的으로 普及되기 始作하기는 1876年 강화도조약 이후부터였다. 그리하여 甲午更張 以後로는 醫療行政 및 醫學教育이 전적으로 西洋醫學 中心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3) 19 C. 疾病史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퍼진 것은 1821年으로 “頃刻之間 十無一二生者, 家家傳染 疾於漂火 古方無所 醫幕能執證”이라고 하였으니 그 病勢의 猛烈, 傳染의 迅速에 놀라 怪疾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때에 서울에서만 13萬名의 死者가 있었고 全國的인 統計는 없으나 數十萬이라고 추계되고 있다.

그후에도 가끔 “輸疾, 癘疫, 疾疹” 등의 流行記事가 보이더니 1859年부터 日本에서 전파된 콜레라가¹⁸⁾ 流行하여 1863年까지 連續되었다. 이러한 怪疾에 대해서 一般이나 醫師도 그

原因을 몰랐으며 그저 癘祭를 지낼 뿐이었다. 1886年에도 또 콜레라가 大流行하여 死亡相續했다. 實錄에 “癘疫大熾”라고 記載된 것은 流行性感氣, 發疹티프스 등 여러가지 病을 汎稱한 것인데, 發疹티프스가 그 流行에 있어서 最上位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推測 된다고 한다.¹⁹⁾

4. 東武 李濟馬의 生涯

東武 李濟馬는 先生은 1836年 3월 19일 (陰) 함경북도 함흥군(현재 함주군) 천서면에서 祖父 忠源, 父, 攀五의 庶子로 태어났다.²⁰⁾

幼年期 때는 祖父의 사랑을 받고 자라, 天性이 쾌활, 용감해서 個性을 屈하지 않았다.

7歲때 北道 문장이라 일컫는 伯父 直長公에게서 通事를 배웠으며 聰明性を 認定받았다.

13歲때 家出했고,

18歲때 蘇聯을 旅行했으며²¹⁾

30歲 前後에 함흥에서 정평가는 客사에서 藝菴 韓錫地(1709 ~ 1790?)가 著述한 ‘明善錄’을 얻었으며, 그후 그를 매우 尊敬하여 “藝菴은 朝鮮의 제일인자”라 稱했다.

1859	_____	小流行	哲宗 10年 콜레라 流行
1860	浙江에	流行	小流行 서울 비룻 京鄕에 大流行
1862	大流行 北京 營口	大流行	平壤. 서울에 流行

長年期的 생활에 대해서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四象醫學을 언제 發明했는지 알 수 없고, 46歲때(1882年) 格致藥 獨行篇을 著述했고, 50歲때(1886年) 金箕陽의 薦舉로 別選武科에 登用되고, 武威長을 거쳐 鎭海縣鑑

을 제수하였고, 겸하여 병마 절도사에 임명됨.

54 歲때 (1890 年) 格致藁 儒略篇을 著述하고, 56 歲때 (1892 年) 格致藁 反談箴篇을 著述하고,

58 歲때 (1894 年)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고, 59 歲때 (1895 年) 遺藁抄를 著述하고,

60 歲때 (1896 年) 母喪喪 중에 함흥지방의 混亂을 야기한 崔文換의 騷擾를 評定하고,

61 歲때 (1897 年) 濟衆新編을 著述하고, 崔文換의 亂을 評定한 功으로 正三品 통정대부로 봉해져 高原郡守로 임명됨.

62 歲때 (1898 年) 모든 관직에서 辭退하여 醫學著述에 專念.

64 歲때 (1900 年) 沒.

以上이 東武 李濟馬에 관하여 발표된 기록들이며, 그는 타고난 聰明性을 바탕으로 겨우 10 살에 經書를 通讀하고, 特히 易經에도 밝았으며²²⁾, 커서는 儒人들 앞에서 두 다리를 꿇고 앉기가 일쑤요, 아무자리에서나 잘 드러누우며, 오고 갈때 인사가 없는 等 破格의 行動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석은 道德律과 固陋한 封建思想에 따라 겪게된, 嫡子가 아닌 庶子라는 것 때문에 오는 身分的 制約에 대한 反感이었으며, 東武라고 號를 짓고 武術을 研磨한 것은 肉體的 疾患을 補完코자 한 것도 있지만, 庶子들도 登用될 수 있는 武科登用을 目標로 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13 歲가 되던 해에 그는 家出을 하였고, 그때 그는 義州 富家 洪氏의 萬券書를 閱覽하고 거기서 學者들로 부터 國際政勢, 學問思想에 對한 新知見을 얻었던 듯하다. 새로운 文物과 思潮를 느끼고자 18 歲에 蘇聯을 旅行하고 全國各地로 遊離漂浪했으며 30 歲를 前後하여 그의

學問的 成就가 어느 정도 到達한 시점에서, 程. 朱의 性理學을 正面的으로 批判한 藝菴 韓錫地의 明善錄을 보고서 큰 感銘을 받은 듯하다.

大體的으로 우리들은 東武 李濟馬를 醫學者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는 어려서 부터 몸이 아파서 醫學을 공부하였고, 靈樞 通天篇의 五態人論, 陰陽二十五人篇의 二十五人論²³⁾을 읽다가 偶然히 四象人 體質을 發見하였다²⁴⁾고 알고 있다.

그런 그에게는 醫學이나 儒學이나 特別한 才能이 없었으며, 단지 全國을 遊覽하면서, 또는 이름있는 醫師나 儒學者가 있으면 不遠千里 찾아가서 배운 듯하다.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오고 오는 것은 意氣投合하고, 學問과 思想이 一致하기 때문인 것을 볼때, 東武가 39 歲 年上의 蘆沙 奇正鎭(1798 ~ 1879)²⁵⁾을 全南 長城까지 찾아 간것은 같은 脈絡에서 理解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언제부터 醫學을 배웠고, 特히 四象醫學을 研究했는가 하는 것이 큰 疑問으로 남는다. 그가 남긴 두 券의 著書 중에도 이에 대한 記錄은 없으며, 弟子들도 밝힌 바가 없고, 나중에 洪淳用氏가 함흥을 여행하면서, 그에 대한 疑問을 가지고 알아 보았으나 알길이 없었고, 東武는 단지 神格化되고 傳說의 人物으로써 마치 數百年 전에 살았던 사람인양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19 世紀 疾病史와 東醫壽世保元 病症論의 內容을 根據로 하여 그것을 追跡하는 수밖에 없다.

19 世紀 들어서면서 東洋三國에는 “輪疾, 癘疫, 瘧病”으로 불리우는 外感性 熱性 傳染病이 창궐하였으며, 朝鮮에는 1821 年(東武 出生前), 1859 ~ 1863 年(23 歲~ 27 歲)과 1886 年(50 歲) 瘧病이 流行했다. 이것은 이제

까지의 傷寒治法과는 크게 달랐고, 醫師들도 執證을 못해서 怪疾이라고 불렀었다. 그리하여 中國에는 葉天士, 吳塘, 王士雄 등에 의해 瘟病學의 成立과 發達을 보게 되었고²⁶⁾, 仲景의 缺點을 補完했다.²⁷⁾

四象醫學 病症論을 보면 少陰人 表病證論에 “四時瘟疫”²⁸⁾, “天行癘疫”, “瘟黃”²⁹⁾에 對한 引用文이 있고, 太陰人 表病症論의 거의 全部分과 太陰人 裏病症論의 1/2 以上이 瘟病에 대한 敘述로 채워져 있고, 東武는 7~8名의 瘟病患者를 四象醫學의 方法으로 治療하여 完快시켰으며, 溫病에 病症狀과 病理機轉, 治法, 治方, 豫候등에 대한 卓見을 제시했으며”, 大凡 瘟疫 先察基人素病 …… 如何則 表裏虛實 可知矣 ……”라 하여 淸朝때 發達한 瘟病學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素病에 따라 그 症狀의 發顯이 實然重險證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 東武는 어느 時點부터 四象醫學을 體得하고, 四象醫學의 方法에 따라 患者를 治療했겠는가. 20代와 50代에 流行한 瘟病중 어느 때에 經驗했던 기록을 東醫壽世保元에 記錄한 것일까. 라는 疑問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을 判斷하는 데는 또 하나의 端緒가 있다. “余稟賦 太陽人 嘗得此病 六七年 嘔吐涎沫 數十年 攝身 倖而免夭 ……”³⁰⁾ 라고 하여 1894年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면서 數十年 동안 攝生해 왔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先生自身은 1894年 以前에 이미 數十年 以前부터 四象體質의 理論을 알고(어느정도 만이라도 …) 自身에 맞는 攝生을 해온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跋文에서 “少陰少陽人論 則略得詳備, 太陰太陽人論 則僅成簡約 蓄經驗未遍 而精力已憊故也”³¹⁾라 한것을 볼 때, 全體人口 중 太陰人이 50%나 된다³²⁾고 했으면서도 太陰, 太陽人의 經驗이 不足했다고 말한 것

을 미루어 볼때, 先生이 20代 부터 四象醫學의 方法으로 疾病을 治療한 것은 可能性이 거의 없게 된다. 또 精力이 이미 枯竭됐다는 것도 이것을 뒷받침 해주며, 50歲때 金箕陽의 推薦으로 官職에 처음 나아간 것도 醫學과는 전혀 다른 分野인 것을 볼 때, 推薦理由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된 것은 醫學의 名聲이 아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東武가 논한 太陰人篇 중 瘟病 治驗例는 1886年 流行했을 때의 觀察 結果라는 것임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

따라서 東武先生은 13歲때 鬱憤을 느껴 家出하면서 自身을 悲觀하고 精神的으로 많은 슬픔(哀)과 노여움(怒)을 겪게 되었으며, 그 후 열격과 해역증으로 대표되는 太陽人의 疾患으로 6~7年 동안 苦生을 하다가 醫學에 關心을 가지게 되었고, 全國의 有名한 醫師를 찾아서 보고, 듣고³³⁾ 또 그러한 緣由를 探究하는 過程에서, 偶然히 人體의 個體性을 깨닫게 되어 研究를 繼續하였고, 藥을 實驗하기 위해 신흥군, 장진군 등의 깊은 산중에서 藥材를 採取해서 달이고, 썰고해서 맛보고 患者를 治療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醫學이 完成될 段階에서 失性한 사람같이 되었다고 한다.

蘆沙 奇正鎮(1798~1879)과의 交流는 蘆沙가 死亡(東武가 42歲)하기 까지 繼續됐다고 보더라도, 東武가 30~40代 初半까지가 주를 이룰 것이며, 이제까지의 經書를 통한 자기의 學問, 思想을 바탕으로 當時의 巨儒 蘆沙와 儒學 전반에 걸쳐 問答함으로써 自己思想의 獨特한 世界를 마련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蘆沙가 死亡하고 1882年 格致叢 獨行篇을 著述할 때에는 이미 鄙薄貪懶의 四象人에 대한 概念 定立이 어느 정도 끝난 狀態였던 듯하다. 어느 정도 四象體質의 確固함을 自信했었기 때문에, 그 自信感을 바탕으로 해서 獨行하여 天

下民衆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成就感에서 著述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며, 50歲때 官職에 나가면서 生活이 安定됐고 그 때 부터 本格的인 著述活動을 할 수가 있었으며, 1886年 또 한차례 癩病이 大流行하자 비로소 이 때부터 體系화된 四象醫學으로 대단한 氣勢를 떨치던 癩病을 治療하고 그 效果가 탁월하고, 또 그 結果 李濟馬는 牧民官으로서 보다 醫師로서의 名聲이 높았으니³⁴⁾ 그 結果를 東醫壽世保元에 실었고, 癩病은 한해동안만 流行하고 사라졌음으로, 大體的으로 病이 없던 太陰人에 對한 充分한 記錄을 할 수가 없었던 듯 하며, 1895年 作品인 遺藁抄에는 自身의 四象醫學과 四象說의 論理構造가 聖人의 至極한 情으로 自身에게 알려졌으며, 自身 또한 聖人을 思慕하여 마침내 지금(世上을 위해 무엇인가 해냈다는……)에 이르렀다고 매우 洽足해 하면서 格致藥를 마무리 지었다. 太陰人의 病症論에 대해 보충을 하고자 하여, 1900年에 醫原論에서부터 太陰人病症論까지 더 보충하고, 나머지는 더 보충할 氣力도 없이 精力已憊하여 沒하고 말았다.

5. 四象醫學과 既存醫學과의 關係

東武가 살았던 시대는 政治·社會적으로 變化가 無雙하던 시기였으며, 實學者들의 思想과 開化思想家들의 知識이 識者層에게 크게 알려졌던 때 였고, 東武公도 이들의 思想的 影響을 많이 받았으며, 그 內容이 그의 作品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格致藥와 東武壽世保元의 全篇을 흐르는 思想은 지극히 人間的이고, 現實的이며 空理空論을 拒否한 實證的 思考라 할 수가 있다.³⁵⁾ 따라서 既存醫學의 觀點에서 四象醫學을 異端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理氣二元論의 思考方式에서 理氣一元論을 異端이

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지만, 理氣一元論의 思考方式에서 理氣二元論을 볼 때는 理와 氣가 둘이 아니면서 그 理論 自體에 問題點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既存醫學의 觀點에서 四象醫學을 바라 볼 때, 四象醫學은 既存醫學의 理論體系를 無視한 學問이라고 할 수 있으나, 四象醫學의 視野에서 볼 때 四象醫學과 既存의 韓醫學은 결코 둘이 아니면서, 疾病을 診斷, 治療하는 데 있어서 4個의 區域으로 사람을 먼저 나누고, 그 사람의 個體 素察에 따라 그가 가진 強弱을 調節함으로써, 저절로 健康狀態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醫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點에서 四象醫學은 既存의 韓醫學을 바탕으로 하면서 發展된 學問이지만, 既存醫學에서 重要視되고 不變이라고 믿어 왔던 것을 과감히 批判하고, 새로운 方向으로 轉換하여 說明했다. 東醫學壽世保元에 나타난 이런 대목을 바탕으로 하여 四象醫學과 既存의 韓醫學과의 關係를 照明해 보고자 한다.

1) “若夫脈法者 執證之一端也, 其理在於 浮沈遲數 而不必求其奇妙之致也”³⁶⁾라고 하여, 이제까지의 韓醫學에서 絕對視했던 脈法을 간단히 浮沈遲數으로 못박았으니, 이것은 “脈이란 心臟에서 血液이 四肢百骸로 뻗어 가는 것으로서, 江물이 여러 山에서 나와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江의 中流에서 손을 담구어 이 물은 金剛山에서 發源한 물이며 (肝臟脈이니 心臟脈이니 等等……), 저것은 太白山에서 發源한 물로서 太白山 어디가 탈났다고 할 수가 없다”³⁷⁾라고한 茶山의 理論을 따르듯 하며, 診脈이란 五臟에 屬한 脈이 따로 있어 그것으로 肝病, 心病, 脾病을 알아낼 수가 없고, 浮沈遲數으로 단지 血氣의 盛衰와 病情의 虛實을 알아낼 뿐 이라고 했다.

2) “三陰三陽者 辨證之同異也, 其理在於腹

背表裡 而不必求其經絡之變也”³⁸⁾라고 하여 12 經絡의 變化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은 不必要 하며, 陰陽對待의 原理로서의 腹背表裏를 살필 것이지 三陰三陽에 特別한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지만 “嘗見 少陰人 中氣病 舌券不語. 有醫針合谷穴 而其效如神 … 蓄針穴 亦有 太少陰陽 四象人應用之穴 而必有昇降緩速之妙 繫是不可不察, 敬候後人之謹厚而好活人者”³⁹⁾라 하여 經穴을 굳이 針穴로 表記했고, 經絡代身 肺, 脾, 肝, 腎의 薰을 設定했으며, 少陰人の 合谷穴에 대한 針治療와 같이 經穴과 四象體質과의 關聯性을 氣의 昇降緩速의 妙로써 잘 探究하여 밝혀주길 바랬다.

3) 五運六氣의 概念을 引用하거나 論한 痕迹이 없는 것 또한 “醫者가 五運六氣의 說을 妄造하나 病症에 對해 藥을 쓰는 데는 아무所用이 없다”⁴⁰⁾라고 한 茶山의 思想을 받아 들이고 있다.

4) “張仲景所論 太陽病, 陽明病 …… 以病症名目而論之也, 余所論 太陽人, 少陽人 … 以人物名目而論之也, 二者不可混看”⁴¹⁾이라고 하여 既存의 韓醫學의 病症의 轉變을 爲主로 한데 反해, 四象醫學은 人物 卽 天稟에 의해 太少陰陽人の 四類型으로 區別되는 個體醫學임을 밝혔다. 이것은 곧 타고난 天稟의 구별이 先決要件이며, 執證은 그 다음이 되니 證治醫學에서 個體醫學으로의 醫學的 視界擴大를 圖謀했다고 할 수가 있다.

5) “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 偏着者 爲病, 但知脾胃水穀 風寒暑濕 觸犯者爲病”⁴²⁾이라고 하여 既存 漢醫學의 特性이 內因, 外因, 不內外因의 病因論 중에서 七情傷의 內因을 敍述하기는 했으나, 輕視 했던데 비해,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의 順逆에 의한 性情의 偏差가 肺, 脾, 肝, 腎에 直接的인 影

響을 미친다고 하여, 疾病의 原因을 不正心으로 보았다.

6) “實是 醫家格致之宗主 而苗脈之所自出也, 不可全數 其虛誕之罪 而廢其啓發之功也 … 其理有可考 而其說 不可盡信”⁴³⁾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東武 李濟馬의 四象醫學이 平地 突出한 것이 아니라 前人之述과 東武先生 自身の 刻苦의 努力 끝에 完成된 것이며, 以前の 經驗을 尊重하고 그들의 醫學史 上的 功勳을 잊지 않았으며, 그들의 醫案들을 參考삼아 考察했으되 다 믿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既存의 漢醫學의 思考方式 아래에서는 터득하기가 어려웠던, 診斷과 治療에서 必要不可缺한 四個의 鮮명한 里程碑를 만들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點에서 四象醫學을 깊이 알지 못하고 단지 盲目的으로 排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事實이며, 四象醫學의 特性이라고 할 수 있는 臟腑構造理論과 既存의 醫學理論과 다른, 體質에 따른 治法, 藥物의 相反된 適用으로 因하여, 마치 四象醫學을 韓醫學의 突然變異種, 또는 反對種으로 생각하는 것은 東武 李濟馬의 觀點과 상당한 乖離感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7) “家家知醫 人人知病 …”이라고 하여 醫學의 權威主義에 反對하고, 大衆 속으로 擴散되기를 원했으니 치료효과의 優秀성과 藥材의 簡略함. 理論의 煩雜하지 않음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天下之受病 都出於 妬賢嫉能, 天下之求病 都出於 好賢樂善 故曰 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라고 하여 病理學的이거나 藥理學的인 病과 藥의 概念을 넘어서⁴⁴⁾, 社會病理學的인 心理治療의인 새로운 醫學論을 제창했다고 할 수가 있다.

6. 格致藥의 주된 思想

東武 李濟馬가 格致藥의 儒略, 反誠箴, 遺藥抄, 濟衆新編과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는 등 왕성한 문필력을 발휘한 것은, 50세로 처음 관직에 나아가면서 생활이 안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 온 동무로서, 50세가 되어 처음으로 관직에 오른 것은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것은 그가 젊어서부터 신분제도의 불합리 속에서 겪어온 고통, 空理空論에 치우친 性理學에 대한 反感을 直接 治入하면서 자기의 뜻을 펴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마침 1886年 瘟病의 大流行은 牧民官과 의학자로서의 사명감과, 四象醫學의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한 결과가 卓越하자(太陰人病症論에만 七. 八人의 卓效가 기록) 커다란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며, 이것이 그의 잠재적인 저술욕구를 발휘시켰을 것이다.

東武가 格致藥를 통해 이미 수많은 유학자들이 논했던 儒學의 基本的 概念들을 再論한 것은 어떤 새로운 知見을 얻었고, 그것을 발표해도 좋을 만큼의 어떤 自信心이 크게 작용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慾求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著者는 格致藥에 대한 批判的 태도를 버리고 그의 思想을 肯定的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儒 略」에서⁴⁵⁾

學問思辨 心四端也
 貌言視聽 事四端也
 屈政收伸 身四端也
 意慮臆志 物四端也

라고 함으로써 四象說的인 그의 思想의 要諦를 보였다.

이것은 맹자가 公孫丑章 下에서 ‘사람에게는 네가지 몸체가 있는 것이다. 이 네가지 몸체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도적질하는 자다’라고 한 것을 十分 긍정하면서, 이윤⁴⁶⁾이 廣野에서 논밭을 갈면서 堯 舜 임금의 道를 실천하고, 사는 그 居處가 가히 불만한 구경거리로서, 자기주장속에서 또 그 나름대로의 志操와 節概가 있어 보이며, 伯夷, 叔弟가 首陽山 깊숙한 곳에서 暴惡한 殷나라의 紂王을 討滅하고 周나라를 세운 武王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고비와 고사리를 캐서 먹고 사는 것도 또한 나름대로의 清廉함이 있어서 불만하다. 이와 같이 學問과 思辨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옛 聖인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仁, 義, 禮, 智라고 하여, 사람이 精誠으로 한 몸을 귀중한 보배로 삼고, 잃어 버리지 말아야 된다”⁴⁷⁾ 고한 것처럼 나의 뜻에서 구하고, 思辨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니 바로 나의 간직한 性品에서 구하여, 사람으로서의 道理를 다하는 것⁴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大學과 中庸에서 논한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格物致知, 誠意, 正心하는 능력은 學問, 思辨하는 데서 나온다고⁴⁹⁾하여 유학의 주된 사상으로서의 學問, 思辨을 통하여 誠으로써 一以貫之하는 東武 四象學의 土產를 마련했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東武 자신도 “남자의 몸은 책임이 중하여 잠깐 사이라도 마음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天地는 커서 心, 身, 事, 物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나, 君子는 항상 誠實히 머무르지 말라”⁵⁰⁾고 하여 誠으로써 自警의 뜻을 새겼고, 이 誠의 입장에서 伯夷⁵¹⁾의 미워한 바는

僞善이며, 柳下惠⁶²⁾의 옳지 못한 惡과 싸워 반드시 이겨내는 것이 아름다움이라⁶³⁾고 했다. 誠이란 天下의 至極한 精으로써 자기의 옳음을 貫徹시키는 方便이라고 했다.⁶⁴⁾

白夷는 不淨한 것이면 눈으로 보지를 않았고, 부정한 소리는 귀로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禮를 지킬 줄 모르는 鄉人과 섞여 살질 못했다. 그는 惡을 미워하고 그것을 철저히 물리치는 성격의 소유자이며,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섬길 만한 훌륭한 임금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결코 섬기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白夷의 氣風을 들은 사람은 아무리 愚鈍·貪慾하는 자(頑夫)도 清廉해지고, 懶夫라도 志操를 지킨다.

柳下惠는 담담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버려져도 원망하지 않았고, 곤궁에 빠져도 근심하지 않으며 鄉理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을 너그럽게 대했다. 그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내결에서 별거받고 있을들 네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으며, 악을 排斥하지도 않고 당시 신분사회의 일반적 평판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의 이런 氣風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리 鄙夫라도 너그러워지고, 薄者라도 厚하게 된다.

이들 두사람의 상반되는 행동은 일편 清廉과 使命感의 極致라는 점에서 후대의 模範이 되는 한편, 伯夷의 偏狹한 潔癖은 固陋의 弊害를 가져왔고, 柳下惠의 輕率한 處身은 每事에 謹慎한 줄 모르는 不恭하는 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이런 경향성들은 둘다 군자가 따를 만한 正道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유학의 基本立場이었고, 孟子 또한 그러했다.

伊尹은 벼슬에 대한 욕심은 추호도 갖지 않은 사람이어서 湯王의 정중한 초청을 받고도, 그것을 상대하려 들지도 않았으나, 그래도 湯王이 세번이나 사람을 보내자 생각을 고쳐 자

기 혼자만이 堯, 舜의 道를 즐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湯王으로 하여금 堯, 舜과 같은 理想君主가 되도록 돕는 것이 더 값진 일이겠다는 생각으로 벼슬을 받고 ‘사람은 선천적으로 賢, 愚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어서 하늘은 먼저 事理를 깨닫는 先覺者로 하여금 어리석은 백성들을 일깨워 주도록 한 法則을 세워 놓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하늘로 부터 選擇받은 가장 우수한 先覺者라는 것이며 柳下惠의 경우처럼 강한 責任感을 지녔으나, 그것은 聖人으로서의 충분한 素地는 갖춘 것이 되지만, 그것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하나의 결실을 이루도록 하는데까지는 그 능력이 못미치고 있다고 孟子는 批判했다.

결국 이들 세사람이 聖德에 못미침을 集大成해 놓은 이가 바로 孔子라는 結論이다.

伯夷는 성인 중에서도 그중 清廉했던 이요, 伊尹은 그중에서도 使命感이 우수한 이요, 柳下惠는 성인중에서도 특히 調和의 기질이 우수했던 사람이요, 孔子는 그중에서도 때를 알아(時中) 일해나간 사람 이었다. 集大成이란 말을 音樂에 비유하여 설명한다면 처음에 鐘은 크게 울리고 은은한 玉의 소리로 끝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孔子가 세 聖人의 일을 모아서 大聖人의 일로 만든 것은 音樂을 연주하는 자가 衆音의 小成을 모아서 大成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뜻을 弓術에 비유하면, 활을 당겨 백보 앞의 標의에 미칠 수 있는 것은 箭이라고 할 수가 있으나 그 화살이 표적의 중심을 꿰뚫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智慧가 필요한 것이니, 孔子만이 이를 다 兼備해 유효적절히 때와 일에 맞추어(時中) 실생활에 반영할 수가 있었다⁶⁵⁾는 것이다. 소위 孔子를 智와 德을 겸비(集大成)한 大聖人이라고 일컫는데 대한 孟子 나름의 確固한

주장이며, 이러한 孟子의 학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東武 李濟馬는 格致叢 全篇을 통하여 學問 思辨의 心四端으로서의 表象으로 白夷, 柳下惠, 伊尹, 江太公, 孔子를 들어 誠으로써 一以貫之한 聖人들을 보여주고 있다.

大國에서 ... 政權을 세움에는 簡選이 있어야 하고,
 簡選이 당당하지 못하면 정치의 規率이 紊亂해진다.
 簡選이 넓게 시행되면 정치의 規率이 잘 시행된다.
 公職者에게는 俸給이 있어야 한다(국민 수탈방지).

大衆에서 ... 國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國民에게 主權이 있어야 하고,
 主權이 있으면 權威가 선다.
 國民에게는 刑法이 있어야 하고,
 그 刑法은 善을 권해야 한다.

大方에서 ...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地位가 있어야 한다.
 德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大土에서 ... 土地는 虛費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貯蓄을 해야 한다.
 반드시 法과 細則이 있어야 한다. 「以上 大風箴」

東武公은 詩文. 雜書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思想的 淵源을 알 수가 없으나, 儒略의 大風箴에서 實學者들의 思想을 언뜻 볼 수가 있다. 東武가 韓錫地와 實學思想家의 影響을 받고서도 直接的으로 현실에 대한 批判을 하지 않은 것을 두가지로 解析할 수가 있다. 첫째 東武가 格致叢 儒略篇을 著述하던 1890年은 官職에 있을 때이며, 牧民官으로서 直接 目擊한 現實 批判的 認識보다, 醫學에 대한 探究가 한층더 뿌리 깊었기 때문에 看過했을 것이며,

둘째, 人性 後半期の 東武는, 藝菴 韓錫地와는 다르게 現實社會에서 指導的 位置에 있었고, 現實社會에서 상당한 成就感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現實社會에 대한 批判的 視覺 自體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비록 身分的 制約이 있기는 했으나 이미 그 當時는 그것을 벗어나 指導層에 屬했고, 當時의 思潮는 別問題가 되지 않았다.

以上の 理由로 大風箴에서 近代의 思想을 論하면서도 直接的인 批判은 保留한 듯하다. 大風箴에서 論한 東武의 思想과 비슷한 內容을 主張한 實學者를 찾아 본 結果, 茶山은 ‘經世遺表’에서 中央政治機構의 全面的 改編을 詳細히 論據했는데, 中央行政機構를 縮小改編하고, 그에 따라 官員을 減員하는 것만이 紊亂한 國家制度和 窮乏한 國家財政을 건지는 唯一한 方法이라고 했고, 農民의 田중에서 1/10을 公田으로 하고, 共同으로 管理 耕作케 하며, 民役을 均等히 하고 屯田法을 整備하여 經費를 줄이는 等 土地制度의 革新을 主張했다. 또 ‘湯論’에서 天子도 間接選舉를 通하여 民衆이 選出하는 것이며, 選出된 사람이 適當하지 않으면 辭退시키고 다시 하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里長을 改選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主權在民의 民權思想의 한 例라 할 수 있으며, 이는 東武에게 그대로 傳達된 듯하다. 더우기 東武가 格致叢를 著述하던 시기는 識者層에 開化思想이 漫延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西學에서 배운 것도 排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實學者들의 思想的 影響이 가장 컸다 할 것이다.

以上에서 茶山이 論한 것과 東武의 論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한 世代를 앞서 간 茶山이 “君子가 著述하여 世上에 傳하는 것은 오직 한사람의 知己를 위해서다”라고 한 知己가 바로 東武라고 한대도 과히 틀린 말은 아

널 것이다. 비록 東武 自身이 누구의 影響을 크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記錄하지는 않았지만 大風箴을 根據로 하여 감히 主張할 수가 있는 것이다.

「反誠箴」에서

東武가 이篇의 이름을 反誠이라 한 것은, 東武 자신이 自幼至老하기까지 千萬생각으로 속이는 마음이 無窮했는데, 거짓된 것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失敗하게 되고, 더욱 더 困窮해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反於誠 而自警也”라 하여 57歲 때에 이르러 自警文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反誠과 自警 두 글귀는 孟子 盡心장에서 “모든 事物의 理致는⁵⁶⁾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반성하여 誠에 이르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한 것에서 크게 影響받았으며, 粟谷, 李珣가 20歲 때 自警文을 짓고서 平生을 어기지 않았다고 한 것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가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此箴名義 依倣易象
而乾兌箴 尊道中庸
坤艮箴 鉛德大學
離震箴 取則柳下惠
坎巽箴 取則伯夷

東武는 反誠箴에서도 儒略과 마찬가지로 學問의 길을 논했다. 왜냐하면 東武의 立場에서 볼때 이 세상의 모든 善, 惡은 學問, 思辨의 不誠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學問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니 그 放心을 求할 뿐이다. 대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혹 술, 여자, 돈 권세 이런 것들에게 반드시 달라붙는 私慾이 있으므로 거짓을 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심한 것을 克服하면 나머지 소소한 慾心은 저절

로 克服된다.⁵⁷⁾ 이것이 바로 克己復禮이다. 反誠箴에서 形象의 理致에 대해 卦象을 取한 것은 다만 東武 自身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 형상을 여덟가지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伏羲의 易象이 이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대개 卦의 名義와도 맞고 혹 다른 것은 실로 억견과 탐색으로 미칠 바 아니니 짐짓 거론할 게 못된다. 그래서 依倣이라고 했다.⁵⁸⁾

여기서 乾坤坎離 등의 향으로 나눈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단지 東武가 八卦로서 淸상하여 얘기를 展開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指標로서 言及할 따름인 것이다.

反誠箴에서는 大學과 中庸에서 論한 儒敎思想의 基本概念들인 格物致知, 新民, 明德,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와 天·人·中和·中庸의 道와 德, 道, 德, 君子, 聖人, 誠等等에 대해서 東武 自身の 소리를 적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東武의 思想은 洙泗學에 根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孟子의 思想을 그대로 繼承하여, 朝鮮朝를 통해 끝까지 繼續된 理氣論爭과 人物性同異論에 대한 間接的 批判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이 極히 맑으면 물결이 일지 않고, 모진 불에는 濕氣가 容納치 못하고, 매우 곧은 나무에는 가지도 없으며, 강철로 만든 칼은 둔할 수가 없다. 산은 항상 머무름으로써 능히 머무르고 못은 항상 기뻐함으로써 능히 기쁘고, 번개는 항상 움직이므로 능히 움직이게 되고, 바람은 항상 들므로 능히 들게 된다”⁵⁹⁾라고 하여 八卦의 괘상을 말함으로써 至誠으로 가는 곳에는 하나의 속임수도, 부끄러움도 없으며, 이 至極한 곳에는 本性이 自在함을 밝혔다. 우리가 聖人이라고 하는 분들은 八卦의 괘상이 모두 자기 本性을 뚜렷하게 하여 거기서 벗어남이 없는 것처럼 그 性品이 비록 크게 행해도 더함이 없고 窮

하게 살아도 덜림이 없나니, 그것은 그분들이
至極한 精誠으로 心四端을 밝혀서 放心을 求했
기 때문이요, 孔子와 孟子 같은 이는 하늘이
그때, 기회, 재치, 이익을 주지 않으면 貴顯達
을 원하지 않았고, 困窮貧賤을 원망하지 않았
다.⁶⁰⁾ 따라서 人間이 하는 道는 곧 精誠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君子之心과 小人
之心이 있어서 君子의 마음은 易知요, 小人의
마음은 難知인데, 알기 쉬운 마음이 많고 알
기 어려운 마음이 적으면 君子이며, 알기 어려
운 마음이 많고 알기 쉬운 마음이 적으면 小
人이라고 하였고, 君子나 小人이나 性品이 純

粹하기는 동일한데 마음이 달라서 君子, 小人
이 된다고 했다. 이것은 衆人의 性이 堯舜과
同一하며, 耳目口鼻, 肺脾肝腎은 聖凡一如이나,
頭肩腰腎, 額臆臍腹은 스스로 聖凡不一如인 것
이⁶¹⁾ 誠心, 好學⁶²⁾ 하지 않은 때문이다. 聖賢은
天稟이 凡人과 다르고 生而知之하는 것이 아니
라 至誠과 惟善, 好學의 하나로 一貫하여 만
들어지는 것임을 주장했으니, 이것은 韓錫地의
思想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다. 韓錫地는 明
善錄에서 “孔子는 生而知之하여 聖자가 된 것
이 아니고, 學而時習之하고 學而不壓하여 上學
上達했다”⁶³⁾고 했으니, 東武는 그의 이러한 思
想을 이어 받아 聖인과 凡人은 性과 慾이 같
다⁶⁴⁾고 하여 聖凡一如說을 主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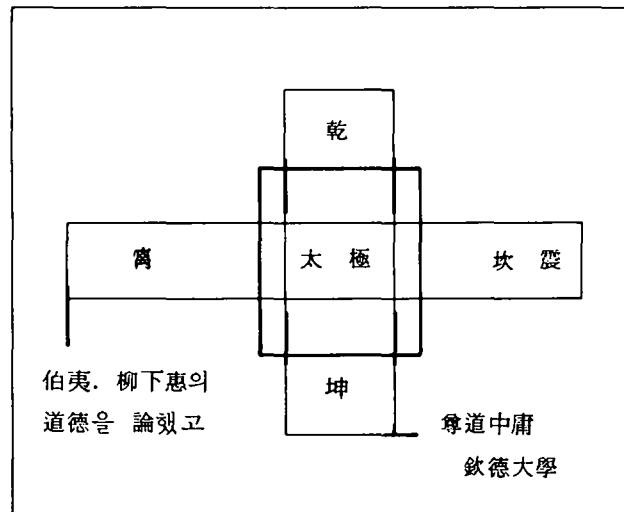
反誠箴 끝부분에서 東武는 周易의 卦象을 빌어 이러한 內容을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性理也 未來也 聖人與君子, 小人, 一同理於未來也.

一身立誠於昊天之下 而中庸之道 行於昊天之下 乾兌部位
所以形於上也.

未來在天 天在上也

知行在我 我在左也
整齊知行之術 其理
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震部位
所以形於在也.



祿財在他 他在右也
平均財祿之權 其理
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
也 坎
巽部位 所以形於右也.

過去在也 地在下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 而大學之道 行於大地之上 坤艮部位
所以形於下也.

心慾也 見在也, 聖人與君子, 小人, 萬殊欲於 見在也.

「遺藥抄」에서

“存心養性하니 行함은 반듯이 正大하고, 수
신입명하니 반드시 세상을 구제하여야 한다”⁶⁵⁾
라고 하여 孟子가 “自己的 마음을 다하면 자
기의 性을 알고 자기의 性을 알면 天을 섬기
는 方法이요, 夭折, 長壽에 疑心을 두지 않고
自身の 德을 닦아서 天命을 기다리는 것이 天
命에 따르는 것이다”⁶⁶⁾라고 한것에서 더 나아
가 사람은 반드시 世上을 널리 救濟해야 된다고
했다. 옛 聖人이 至極한 精誠으로 東武에게
알려주었고(六經四書와 醫學經驗으로 修己하
고), 東武는 그 聖人들의 도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지금 天下 國家를 爲할 수 있는 지
점에 마침내 이르렀으니 本末을 모두 갖춘 셈
이다. 東武는 自身이 四象醫學을 發明한 것을
매우 拾足해했다.

「濟衆新編」에서

學問之道는 無也라, 그 放蕩한 마음을 求하
고 부드러운 마음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을
誠이라고 하고, 思辨之道는 無也라, 그 安逸한
몸을 警戒하고 敏捷하고 굳센 굳을 마련하는
것이니, 이것을 敬이라고 하며, 李珣가 격몽요
결에서 學問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써 마땅히 걸어가야할 길을 밝혀 주는
것이라고 한것을 더욱 더 發展시켜 學問과 思
辨을 對待로 두고 心身과 誠敬을 連結시켜 誠
心, 敬心으로서 聖人, 君子가 되라고 했다.

Ⅲ. 結 論

東武 李濟馬의 生涯와 思想을 알아보기 爲하
여 格致藥, 東醫壽世保元과 其他의 이미 發表
된 論文들을 살펴 보았을 때, 東武公은 그 自

身의 生涯에 대해서 著述中에 直接的으로 言及
한 바는 없으나, 대체로 肯定的이고 現實的인
삶을 살았으며, 그의 思想 또한 醫學的 探究
에 餘念이 없었던 關係로 現實批判的인 主張은
直接的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以上の 內容을 簡略하게 結論지우면,

1. 東武 李濟馬는 「이이-유형원-이익-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實學者들의 思想을 繼
承했으며, 그에게 直接的인 影響을 준 사람을
茶山 若鏞이었다.

2. 東武 李濟馬는 醫學공부에 앞서 經學을
通讀한 經學者였으며, 空理空論에 치우쳐 現實
의 難局을 打開하지 못하는 性理學과, 自身의
疾病에 뚜렷한 解答을 주지 못하는 既在의 韓
醫學에 對해서 批判的 觀點을 가졌던 結果로
四象醫學을 發明할 수가 있었다.

3. 東武의 四象醫學은 孟子의 盡心章(下)
에서 論한 鄙, 薄, 頑, 懶夫의 概念을 土臺로
하고, 內經 靈樞의 陰陽 二十五人論의 體質을
連結하여 四象人論을 完成시켰다고 할 수가
있다.

4. 東武가 四象醫學을 發明한 것은 東醫壽
世保元을 著述하기 數十年 前으로서, 自身의 體
質에 알맞는 攝生法을 알기는 하였으나, 不完
全한 學問이었을 것이며, 刻苦의 研究 끝에 體
系化 시킨 것은 四十代였을 것이며, 五十代에
와서야 完成했다고 할 수가 있다.

5. 既存의 韓醫學에 對한 東武의 立場은 批
判的 視覺을 가진 한편으로 歷代醫家들의 思
想을 尊重했고, 그들의 韓學史的 功勳을 잊지
않았다. 따라서 四象醫學은 既存의 韓醫學과
相反된 關係가 될수가 없으며, 疾病을 治療하
는데 있어서 必要不可缺한 鮮明한 길잡이가 있
는, 새롭고 發展된 醫學이라고 할 수가 있다.

6. 東武의 儒學에 對한 立場은, 性理學을

排擊하고 洙泗學의 思考를 爲主로 했으며, 孟子의 思想을 이어받았고, 學問, 思辨의 길을 誠으로써 一以貫之하라고 했다.

7. 聖人과 凡人은 天稟의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니며, 聖人과 凡人은 性과 慾이 同一하다고 하여, 藝菴 韓錫地의 思想을 繼承했고, 主觀在民의 人權平等思想을 皮력했다.

그리고 이 研究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研究에서는 東洋哲學에 對한 깊은 조예가 必需의이고, 보다 精密한 研究를 爲해서는 어쩔 수 없는 先決群題라고 생각되었으며, 한편으로는 淺學이 부끄러웠다는 點이다.

註

- 1) 金能根, 中國哲學史 서울 裝學出版社 1984. p.225
- 2) 朴錫璉, 全體性醫學의 時代 서울 信興出版社, 1979, pp.21 ~ 22.
- 3) 朴錫璉, 上揭書 p.23.
- 4) 鄭鐘復, 儒教哲學思想概說 서울 螢雪出版社, 1971, p.105, 107.
- 5) 裴宗鎬, 韓國儒學資料集成 上卷 解題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80, p.18.
- 6) 金德龍, 朝鮮後期 思想史研究 서울 乙酉文化史 1987, p.542.
- 7) 土亭이 포천현감으로 있을때 올린 上疏文 中の 내용으로, 그의 產業觀은 그의 確固한 哲學的 기초위에 전개되며, 이 상소문 이 却下되자 托정은 辭任하고 말았다.
- 8) 栗谷에 있어서 그 經濟策으로서 代表의 이라 할것은 東湖問答, 萬言奉事, 六條哲의 셋이 있으며, 이 中에서도 洞호문답 中の 「論安民之術」에 基本的인 것이 있고, 그

의 經綸이 요약된 栗谷의 實學思想의 核이 고 할 수 있다.

- 9) 金德龍, 前揭書 p.582.
- 10) 李乙浩, 茶山 經學思想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85, p.8
- 11) 栗谷의 “六條啓”, 趙현의 “八條疏” 등이다.
- 12) 韓錫地, 明善錄 解題 서울 民族文化社 1986. p.10.
- 13) 成樂勳, 韓國思想講座 6卷 「近世 儒學思想의 轉換」 서울 韓國思想研究會, 1963. pp.116 ~ 122.
- 14) 私奴婢는 1894年 甲午更張 때 解放됐음.
- 15) 1860年 水雲 崔濟愚(1824 ~ 1864)가 創如者이며 傳統的인 民族信仰을 바탕으로 儒·佛·仙은 물론 天主教의 教理까지도 일부 吸收한 綜合的 性格을 가졌다. 符籙과 呪術을 重要視 했으며 人乃天思想을 바탕으로 平等主義와 人道主義를 指向하고, 하늘의 運數思想을 바탕으로 했다.
- 16) 西學이라는 誤判아래 處刑된 教祖의 冤을 씻어 달라는 것으로 東學의 公認을 要求한 것임. 1905年 天道教의 名稱을 布告하였다.
- 17) 李景華, 廣濟秘及(1790)…理解하기 어려운 陰陽五行의 病理說을 皮하고 日常生活에 必要한 經驗方을 收錄했다. 石谷李圭峻, 扶陽論…그는 儒學에 있어서도 宋儒들의 設에 盲從하지 않았던 만큼, 醫學에 있어서도 宋·元醫學의 陰陽五行說을 墨守하지 않고, 漢·唐의 醫說을 復古하려 는데 많은 研究와 應用을 거둬 한 特色 있는 醫派를 이루었다. 東武 李濟馬도 여기에 屬한다.
- 18) 金德龍, 前揭書 p.285, 「朝鮮疾病史」 67面.

	中國	日本
1858	콜레라廣東·廈門 流行 朝鮮	長崎始發 콜레라 大流行

1858

19) 金德龍, 前揭書. p.251.

20)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9, pp.393 ~ 402.

21) 朴奭彥, 漢醫學會誌 「東武公의 逸話」 1971-11-15 (第 35 號)

22) 李家源, 東醫壽世保元 譯 서울 瑞文堂 1975. p.3.
李·洪,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9, p.268. “...爻象 可惡矣...” p.282. “...易經. 需九三爻辭..., 象曰...”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pp.9 ~ 56. 性命論중 東武自註는 大部分이 易經을 土臺로 說明된 것임. 記錄에 의하면 몇가지 先見之明이 있었으니, “玉冠子, 水靑龍, 無線電話 等等”... 이것은 知人을 위해 努力하는 過程에서 얻은 能力인 듯함.

23) 李乙浩, 洪淳用, 前揭書 p.144. “靈樞書 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 而略得外形 未得 臟理...”

24) 李乙浩, 洪淳用, 前揭書 p.106. “因前人之迹 偶得四象人 臟腑性理...” p.399 “東武는 두가지 病이 있어서 古典에 依據 治療했으나 낫지 않았다. 여기서 사람은 各自 體質이 다르고, 體質에 따른 病과 藥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했다.

25) 盧沙 奇正鎭 (1798 ~ 1879) 19世紀 湖南의 巨儒·몇번이나 벼슬에 薦擧 되었으나 官職에 나아가지 않음. 理優位論을 堅持하면서 理氣論과 人物性同異論을 批判했으

며 理氣論爭의 마지막 주자였음.

26) 朴贊國, 溫病學 發達에 關한 文獻의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84. p.33.

27)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328.

28) 李乙浩, 洪淳用, 前揭書, p.148.

29) 上揭書. p.199.

30) 上揭書. p.365.

31) 李乙浩. 洪淳用, 上揭書 p.374.

32) 上揭書. p.133.

33) 病症論 중 少陰人 泛論에 “嘗見...有醫...” 라고 한 것이 10回, 少陽人 泛論에 4回 있음. 이것을 미루어 볼 때 醫學 修業을 받는 데 있어서, 特別히 私事받은 分은 없었으리라 보며, 全國 各地의 有名한 醫師를 수없이 찾아 간 것이 或者에게 縮地法을 쓰는게 아닌가 하는 臆測을 낳게 했으며, 몇 가지 일에서 先見之明을 發揮하자 그를 神格化한 것인 듯 함.

34) 盧正祐, 韓國偉人傳記全集 서울 啓蒙社, 1975, p.165. 진해현감 이후에 의사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35) 尹吉永,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明寶出版社 1986. pp.2 (序). 43. 172. 東醫壽世保元의 前篇(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醫原論 및 廣濟說까지)이 哲學的 思考를 土臺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왜만한 識者層에게는 어려운 內容이 아니었을 것이다.

36) 李乙浩, 洪淳用, 前揭書(醫原論) p.107.

37) 成樂燾, 前揭書 p.124.

38) 李乙浩, 洪淳用, 上揭書(醫原論) p.106.

39) 李乙浩, 洪淳用, 上揭書(少陰人泛論)p.217.

40) 成樂燾, 前揭書 p.125.

41) 李乙浩, 洪淳用, 前揭書(醫原論) p.107.

- 42) 李乙浩, 洪淳用, 前揭書(醫原論) p.111.
- 43) 李乙浩, 洪淳用, 上揭書(醫原論) p.113.
- 44) 李乙浩, 漢醫學會報「四象醫學說 批判」
통권 13 권 1971-11-15 (제 35 호)
- 45) 朴奭彥 譯·編, 格致彙「儒略」p.13.
- 46) 伊尹: 殷의 良相. 요리사 출신으로 湯임금
에게 벼슬자리를 구했으며, 湯王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
니겠는가? 누구를 다스린들 백성이 아니
겠는가?” 라고 하면서 使命感을 가지고 善
政을 베풀었다.
- 47) 朴奭彥, 格致彙 pp.17 ~ 18.
- 48) 上揭書, p.102.
- 49) 上揭書, p.22
- 50) 朴奭彥, 上揭書 pp.29 ~ 30.
- 51) 伯夷: 중국 周나라(BC. 1000 년 전후)의
전설적인 형제 聖人·殷나라 孤竹國의 왕
자로 서로 후계자 되기를 싫어했음. 周나
라의 武王이 殷나라의 紂王을 滅하고 周王
朝를 세웠으나 벼슬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周나라의 곡식먹기를 거부한채 首陽山에서
고사리를 캐어 먹다 餓死했음.
- 52) 柳下惠: 魯나라의 節操 높은 大夫, 和而不
流의 대표적 인물로서 食·色의 貧慾을 초
월했다. 그는 관직의 낮고 높음에 관계없
이 무슨 일이든 다 잘 해냈다. 말을 부리
면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었고, 宰相의 자
리에 있으면 明相이었다.
- 53) 朴奭彥, 上揭書 p.113.
- 54) 朴奭彥, 前揭書 p.113.
- 55) 孟子 集註「萬章 下」 서울 明文堂
pp.259 ~ 262.
- 56) 그 理致는 惡惡臭. 好好色하는 結果이니 그
行動을 일부러 힘쓰지 않아도 잘못됨이 없
는 誠의 자리이다.
- 57) 朴奭彥, 上揭書 pp.160 ~ 162.

- 58) 朴奭彥, 上揭書 p.172.
- 59) 朴奭彥, 上揭書 pp.173 ~ 178.
- 60) 朴奭彥, 上揭書 p.368.
- 61) 韓錫地, 明善錄「李乙浩, 解題」p.6.
- 62) 韓錫地, 上揭書(解題) p.6.
- 63) 朴奭彥, 上揭書 p.385.
- 64) 孟子, 「盡心 上」 p.341.
- 65) 朴奭彥, 上揭書 p.385.
- 66) 孟子 진심장 下, p.341.

參 考 文 獻

1. 金能根: 中國哲學史, 서울, 獎學出版社,
1984.
2. 金斗鐘: 東西醫學史, 大綱, 서울, 探求堂,
1981.
3. 金龍德: 朝鮮後期 思想史 研究, 서울, 乙酉
文化社, 1987.
4. 盧正佑: 韓國偉人傳記全集, 서울, 啓蒙社,
1975.
5. : 孟子集註, 서울, 明文堂, 1979.
6. 朴錫璣: 全體性 醫學의 時代, 서울, 信興出
版社, 1979.
7. 朴奭彥 譯. 編: 格致彙, 서울, 太陽社,
1985.
8. 裴宗鎬: 韓國儒學資料集成 上卷,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0.
9. 成樂熏: 韓國思想講座 6 卷 「近世 儒學思
想의 轉換」, 서울, 韓國思想研究會,
1063.
10. 李家源 譯: 東醫壽世保元, 서울, 瑞文堂,
1975.
11. 李乙浩: 茶山 經學思想研究, 서울, 乙酉文
化社, 1985.
12. 李乙浩·洪淳用: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

- 出版社, 1981.
13. 張志淵: 朝鮮儒教淵源(中編), 서울, 三星文化美術財團, 1989.
 14. 鄭鐘復: 儒教哲學思想概說, 서울, 螢雪出版社, 1971.
 15. 韓國哲學史 下券, 서울, 東明社, 1987.
 16. 韓錫地: 明善錄(李乙浩; 解題中), 서울, 民族文化社, 1986.
 17. 韓東錫: 東醫壽世保元. 註譯,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18.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19. 朴奭彥: 漢醫學會誌 「東武公의 逸話」, 1971-11-15 (제 35 호).
 20. 朴贊國: 癩病學 發達에 關한 文獻的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4.
 21. 李乙浩: 漢醫學會報 「四象醫學說 批判」, 1964-10-1 (통권 13 권).
 22. 洪淳用: 漢醫學會報 「東武 李濟馬 傳」, 1964-5-1 (통권 11 권).